



‘속앓이’ 가진 이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크리스탈 속의 토요일》
펴낸 최문희씨

소설을 쓴답시고 떠돌며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다 요절한 작은아버지를 보고 그들에 대한 혐오나 연민을 키우며 살아왔고, 온전한 결혼생활을 누리지 못했던 고모나 이모 등의 한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눈물을 보며 성장했습니다.”

한 개인의 뒤늦어지고 비틀린 삶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까지 육박해 들어가고자 했던 그의 소설들은 지나치게 판타지적인 데로 흐르지도 않고 너저분한 사소설로 경사되지도 않은 균형감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자신의 체험을 소설언어로 보편화시킬 수 있었던 그의 문학적 능력에 기인한다.

정통적인 소설작법에 충실하여 안정감이 느껴지는 구성과, 조탁을 아끼지 않아 거칠지 않고 단아한 문장은 그의 소설이 지니는 미덕으로 꼽힌다. 한편, “상처를 찢어발겨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눈처럼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으로 요약되는 화해의 방식 또한 그의 소설에서 읽히는 따뜻함이다.

“아직은 신인이라 그저 열심히 쓸 따름”이라고 말하는 그는 등단후 난생 처음 자기만의 방과 책상을 가지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 — 박남정 기자

최문희씨(62세)가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은 작가였다. 여고시절 문예반 활동을 하면서 부풀어올랐던 그의 꿈은, 오로지 학비가 싸다는 이유로 입학한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얼마간의 교직생활을 거쳐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사위어갔다. 그런 그가 남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늦은 나이에 그 꿈을 이루었다. 국민일보와 작가세계의 장편소설 공모에 연이어 당선하면서 문단에 화려한 입성을 했기 때문이다.

그가 최근 첫 작품집 《크리스탈 속의 토요일》(문학과지성사)를 펴냈다. 표제작 〈크리스탈 속의 토요일〉외에 〈황홀한 소동〉 〈숨쉬는 빛〉 〈떠 있는 망루〉 〈갈색의 은유〉 등 5편의 중·단편을 수록한 이 작품집은 “나이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 것은 편치 않다. 작품만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그의 소망처럼 그의 작품세계를 보다 깊이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고 떠들며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가지씩은 마음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설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속이야기입니다.”

그의 소설을 통해 육화되고 있는 남자들은 현실에 착근하지 못하고 떠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면, 여자들은 하나같이 남자들의 그늘에서 숨죽이며 한을 쌓아가며 살아간다.

“제 소설 속의 인물들은 따지고보면 다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평생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못했던 부친이나,



일본에 남긴 한국인의 발자취

《한국인이 만든 일본 국보》
펴낸 홍윤기씨

사실을 명기하고 있었다.

“일본의 국보 1호인 보관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본의 왕조사와 불교사를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는 9~10세기에 씌어진 《부상략기(扶桑略記)》 제3권에 ‘서기 578년 일본 성덕대자가 신라에서 보내온 석가상을 교토지역 호족 대표인 신라인 진하승에게 주었고, 진하승이 법륜사를 창건하고 이 불상을 모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진하승이 신라인이라는 증거는 여러 문헌으로 입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진하승이 진시황(진시황은 진씨가 아님)의 후손이라는 억지주장을 펴거나 막연히 도래인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본인들의 내면에 은폐되어 있는 열등의식의 소산인 이런 역사왜곡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나 학생들도 고대사에서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 저질러진 일본의 역사왜곡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복50주년을 맞는 해에 결실을 거둔 제 작업이 일반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리고 진실을 밝히는데 작으나마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허 연 기자

“교토 광릉사의 보관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비롯해 나라에 있는 법륜사의 백제관음, 구세관음상, 비단벌레 불상계, 천수국수장, 다카마스총 벽화 등 일본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펼치면 책의 첫부분에 천연색 사진으로 실려 있는 일본의 국보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보내주었거나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일본인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일본에 있는 한국인의 발자취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한국인이 만든 일본 국보》(문학세계사)를 펴낸 시인이자 일본 선유대학에서 한국시와 일본시를 비교 연구하고 있는 학자인 홍윤기(61)씨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자신을 비롯한 누구의 손에 의해서든 일본에 있는 한국 역사유물에 관한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일본에 있는 고대 한국 문화재들에 대한 어떤 설명에도 ‘한국’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름부터 ‘백제관음’인 유물을 놓고 ‘중국양식’ 운운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실태를 지켜보면서 비록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문헌학의 입장에서 도서관, 고서점 등을 뒤져 300여종의 관련자료를 찾아내 6세기말에서 10세기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본에 전파된 한국문화 유산을 고증해내기 시작했다. 그가 찾아 기록들은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일본의 국보들이 한국것이라는





패션디자이너는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에펠탑에 옷을 입히며〉
펴낸 이미경씨

“패션디자이너는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패션이란 곧 개성의 표현이라고 볼 때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감지해야 새롭고 적절한 표현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기 위해선 항상 젊은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파리의 한국인 패션디자이너 이미경씨(36)가 최근 10년 동안의 유학생들과 프랑스 최고의 패션업체 ‘기라로쉬’ 수석 디자이너에 오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엮어 한편의 책으로 펴냈다.

이 책에는 대학원에 진학해 의상 디자인을 공부하던 어려움, 섬유패션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고 그 계기로 유학을 가게 된 일, 패션스쿨 에스모드 학창시절의 생활, 발리제 패션 콘테스트의 대상 수상과 소르본느 대학원 시절 등 유학시절의 이력들이 삽화식 구성과 간결한 산문투에 실려 있다.

특히 파리컬렉션과 모델들, 기성복 업체의 ‘프레스 패션쇼’에 관한 이야기나 ‘피에르 발망’과 ‘기라로쉬’에서의 여러 체험담 등 패션디자이너를 꿈꾸는 이들에게 유용할 만한 정보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패션의 도시라 불리는 파리에는 정작 한마디로 표현할 특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파리인들의 패션 특징은 획일적인 유행이 따로 없다는 이야기죠. 프랑스 여성들은 패션을 자기만의 개성을 자유분방하게 표현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뿐 다른 사람의 유행을 무조건 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제 나름의 스타일이 있게 마련이듯 프랑스 패션업체들도 고유한 자기만의 스타일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회사의 상표가 곧 스타일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생각될 정도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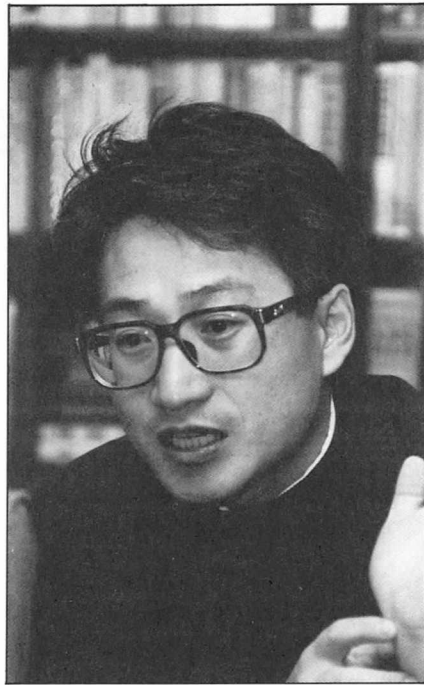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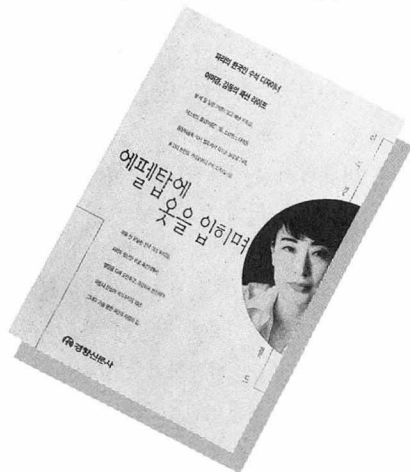
“개인적으로는 현대감각에 맞는 우아하고 심플한 스타일의 옷을 좋아합니다. 옷이란 전통적인 이미지를 후세에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지요. 소르본느 대학원 석사학위 졸업작품전에 한국 전통 매듭의 형태와 짜임새를 현대화한 의상을 출품한 것도 그런 생각과 맞닿아 있는 셈입니다.”

유학생들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언어소통의 장애였다고 털어놓는다. 지금의 남편(현재 프랑스에서 사진작가로 활동중)과 혼인신고만 마친 채 함께 유학을 떠난 뒤 첫 학기가 시작됐을 때 “인사말 외에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는 현실에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는 것.

이제는 불어로 막힘없이 패션에 관한 정보교환을 나눌 정도가 됐다는 이미경씨는 갖가지 경험을 글로 정리하게 된 것이 부끄럽기만 하다. 하지만 이 책에 담은 자신의 이야기가 전문직종에서 일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게 의욕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재 독립 디자이너 겸 컨설턴트로 활동중인 이미경씨에게 또 한 가지 남은 바람은 본격적인 패션디자이너 전문서적을 쓰는 일이다.

—이정민 기자



일상에서 찾는 풍요로운 한자문화

〈테마가 있는 생활 한자〉
펴낸 김대현씨

“우리가 풍부한 한자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반대중에게 한자문화의 풍요로움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욕심도 있었구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한자어들을 테마별로 묶어 그 유래와 쓰임새를 한자문화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 담아 책으로 펴낸 김대현씨(36, 성균관대 한문교육학과 강사). 그는 우리말의 70퍼센트가 한자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 민족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한자문화가 차지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일상어는 거개가 한자어입니다. 그러나 늘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임신(妊娠)은 배가 불룩해진다는 뜻의 娠과 움직인다는 뜻의 娠이 합해진 말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娠에는 ‘말길 임(任)’이 쓰이고 있어 임신의 주체가 여자임이 나타나 있고 娠에는 아이가 배속에서 움직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국어사전상의 ‘아기를 뱐’이라는 짤막한 설명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된다.

“말이 가진 명확한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수준높은 언어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수준높은 언어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수준높은 문화생활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쓰는 말들인데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무심히 사용하고 있는 까닭은 한자문화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우리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은

대부분 한자문화 속에서 잉태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밀려드는 서구문명 속에서 거의 단절된 상태다. 김대현씨가 한자문화의 대중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물론 고전 국역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대중이 읽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이 그의 주장.

“선조들이 남긴 고급한 문화유산을 창고에서 잠재우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그 풍요로운 문화를 계승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것으로 발전시키려면 일반대중들의 한자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확인하는 작업은 곧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김대현씨는 조만간에 후속편을 펴낼 계획이라고 밝힌다. 애초에 ‘사람의 인생’과 ‘자연에서 문학세계’라는 큰 제목으로 나누어 두권 분량의 원고를 썼는데, 이번에 빠진 ‘자연에서 문학세계’에 관한 원고는 내년 초에 책으로 엮을 예정이다.

—한동림 기자

